

#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의 학교현장실습경험 분석: NVivo 10 활용

정미자<sup>\*</sup> · 문 희<sup>\*\*</sup> · 선춘자<sup>\*</sup> · 이동매<sup>\*\*\*</sup>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교육실습은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 한 번 밖에 없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교육실습생 개인에게는 독특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부딪칠 때 실천적인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며(Roh, 2012), 예비교사로서 자신의 교직적성을 점검, 평가, 개발하는 과정이다(Kang, 2013). 교육실습은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교사가 교직에 대한 인식과 태도 형성에 계기가 되며, 교사로서 필요한 지식 획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교원양성과정의 출발점이 된다(Kim, & Kang, 2014).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실습생들이 실습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실천적 지식을 쌓아 가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Jo, 2008).

교육실습생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기존 연구는 실습경험의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의미 또는

체험 등을 주제별로 진술하였으며(Kim, 2005; Hur, 2007),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실습생들이 사물과 환경, 자신의 행위들을 구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탐색하였다(So, 2004).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그들이 실습의 경험을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이해하게 하였다. 특히 교원의 질 향상에서 교사경험과 그들의 실천적 지식을 연구대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

Tang (2003)은 홍콩에서 교육실습생들의 실습경험을 질적 연구한 결과 학생들은 교육실습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통해 성장하게 되기에 교육당국과 교사들은 교육실습생들의 개인적, 전문적 발전을 파악하고 적절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지지하며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육실습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들의 욕구 충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처음 교직 경험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심리적 욕구가 상당히 제약을 당하기 때문에 자율성, 유대감, 능력에 대한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moon6404@hanmail.net)

\*\*\* 중국항주사범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투고일: 2014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13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Moon, Hee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Deongnye-ri, Gwangyang-eup, Gwangyang-si, Jeollanam-do, Korea Zip) 545-703  
Tel: 82-61-760-1446 Fax: 82-61-760-1547 E-mail: moon6404@hanmail.net

(Evelein, Korthagen, & Brekelmans, 2008).

보건교사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실습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를 실시한 결과 실습과정에서는 '설렘과 걱정'을 경험하고, 수업의 어려움과 보람을 경험하고 철저한 수업준비에 대한 고민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him, & Choi, 2013).

교육실습의 영향은 초임교사에게 교과지도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 도움을 주었으며(Jung, 2007; Kim, & Kang, 2014), 교육실습 중에 지식과 기능 그 이상의 것을 배우기 때문에 직업적 사회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보건교사 교육실습은 매우 중요하고 실습기간동안 파악하는 보건교사의 역할 탐색은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에게 의미있게 보고되었다(Hur, 2007; Shim, & Choi, 2013). 교육실습생이 인지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보건봉사가 높았고 보건교육과 상담역할 수행은 기대보다 낮게 나타나 교육실습생을 위한 보건교육자 역할 수행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Kwon, & Oh, 2011). 보건교사의 업무가 실제로 많지만, 보건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체계적 보건교육 실시가 어렵고 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Kim, 2013), 학교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보건교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보건교육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Kim, Ha, Park, Jung, & Kwon, 2012), 간호대학생의 보건교사에 대한 인식 및 역할 기대는 교육실습생들이 경험한 것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교육실습생들이 예비보건교사로서 교육실습에서 경험한 내용은 우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문화에 내재된다(Ahn, & Kim, 2012).

최근 학교보건과 건강증진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사는 학교인구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학교건강증진사업의 핵심인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Yang, Kwon, Jeong, & Lee, 2009; Oh, Gang, & Lee, 2012), 보건교사 확대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매우 부족하다. 간호대학에서 교직이수학생 비율은 2009년부터 정원의 10%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2009년 이후 신설 간호대학은 교직설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Kim, 2012; Kim, 2013).

교육실습은 보건교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간호실습과 비교하여 4주간동안 이루어지는 단 1회의 실습이라는 점에서 다른 실습과는 구별되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실습과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고(Shim, & Choi, 2013), 전반적으로 교직이수학생의 비율이 낮기에 교육실습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대학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사업에서도 교육실습인 학교현장실습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루어 학교현장의 교육실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생의 경험에 근거하여 교육실습생들이 과거의 실습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며 해석하고 그러한 기억에 근거하여 미래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예비교사로서의 경험들을 파악하고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이 경험한 실습에 대해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현상을 기술하고 경험을 분석하여 대상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육실습 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의 실습경험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이 실습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와 상황들을 조직화하는 논리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실습의 현상을 서술하고 이해하기 위해 교육실습생실습 경험을 확인하고 향후 효과적인 교육실습지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실습생의 경험 내용을 확인한다.
- 둘째, 교육실습생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확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들은 전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G대 학교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도 3학년 1학기에 1개월 동안 진행된 교육실습에 참여한 학생으로 총 43명이다.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연

구대상자의 시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는 것이 질적 연구의 기본이다. 연구대상이 한 지역이나 학교, 학급이나 특정 개인이 될 수 있고, 특정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분석의 단위와 분석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연구방법과 연구주체의 특성에 어울리는 일종의 목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교직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정원 10%로 극소수이기에 1개년의 교육실습생의 시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반적인 질적 연구사례에 비해 가급적 많은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3년 동안의 교육실습 이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G대학교에서의 실습은 1년에 1회 시행하고 3학년 1학기에 5월 한 달간 이루어진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며 교육실습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교직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G대학교의 보건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3학년 1학기에 4주간에 걸쳐 진행하는 교육실습을 마친 후에 작성한 '실습활동 후기'에 근거하여 교육실습생들의 경험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10년 이상 보건교사 교육실습 지도를 실시한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실습생들이 공통적으로 작성하거나 발표했던 교육실습 후기에 근거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교육실습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의 방법과 분량은 자유롭게 선택되 응답자 자신의 실습 경험과 관련된 사실 및 전후의 생각을 충실하게 담아낼 것을 요청하였다. 질문에 대한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이 아니라 해당 질문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기술하도록 하여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교육실습생이 느낀 보건교육 실습에 대한 경험과 실습생으로서 느낌 등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내용을 폭넓게 도출해 낼 수 있도록 3~5시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G대학교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총 10개의 개방형 문항을 제시하며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문항 구성은 1번 "실습 첫날 느낌과 마지막 날 느낀 점은?", 2번 "실습 전후 보건교사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3번 "실습 중 가장 많이 봤던 업무와 내가 느끼거나 생각한 중요한 보건교사의 업무는?", 4번 "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5번 "보건교육 수업 후 느낀 점은?", 6번 "보건실에서 가장 많았던 건강문제는?" 7번 "내가 만약 보건교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의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지" 8번 "과제하거나 실습하면서 보람있었던 부분, 힘들었던 점이나 보건실습에 관한 건의 사항", 9번 "실습 후 느낀 학교보건 및 보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은?", 10번 "실습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 등이었다.

이들 두 개의 문항 중, 4번 "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과 7번 내가 만약 보건교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의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지"는 서로 묶어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2개의 개방형 문항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4번. 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실습생이 느끼는 주관적인 견해와 경험이다. 실습생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7번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을 계획한다. 이 두 개의 항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응답자는 앞의 문항에 대한 경험에 따라 뒤의 문항에 해당하는 노력과 계획 등의 경험을 구상하며 반대로 뒤의 문항의 내용과 관련된 기대 또는 가치에 따라 앞 문항에서의 답을 구성한다. 즉,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경험들은 서로를 하나로 통일 하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기에 두 개의 문항에서의 각각 경험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실습생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8번은 한 개의 노트로 구분되어서 9번과 하나로 묶어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수집 문항은 총 7개의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전사, 코딩, 그리고 주제의 발견 순으로 질적자료 분석 절차가 이루어졌다(Kim, & Kim, 2008). 자료분석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질

적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Richard, 2014). Nvivo는 컴퓨터로 질적자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텍스트화된 자료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별 코딩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 43명의 응답자가 기술한 60여장의 응답이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의교육을 강의하고 교육실습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본 연구진들이 함께 질문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진이 수집된 자료를 읽으며 Nvivo 10를 활용하여 bottom-up 방식의 오픈 코딩을 시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컴퓨터를 활용한 자료처리가 용이하도록 텍스트(.txt) 문서로 바로 전환하여 저장하였다.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질적 자료는 NVivo 10의 'Resource' 공간에 문항별로 구분한 폴더에 'Import' 기능을 사용해서 입력하였다.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모든 질적 자료는 같은 방식으로 NVivo 10에 입력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질적 자료 분석이 대부분 NVivo 10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수적인 작업이었다. 수집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 속에 담겨진 교육실습생들의 시각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추상적으로 답변을 했거나 감정만을 표현한 진술들을 제외한 모든 진술내용을 빠짐없이 추출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서 나타나는 경험단위들을 코딩한 후 이러한 경험단위들의 의미를 포괄하는 범주 또는 주제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실습경험들을 누락하지 않고 최대한 나타내려고 하였으며 경험을 구성하는 주제 또는 원리를 귀납적으로 찾아들어갔다.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 의해 기술된 자료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특정한 부분을 찾고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를 명명하였다. 동시에 질적 자료들을 특정주제나 명칭을 중심으로 묶어주고 연결하여 하나의 분석단위로 생성하는 자료의 코딩(coding)이 진행됐다. 이러한 코딩과정에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료들은 제외되고 단순화됐다. 특히 '개방형 코딩 방법' 채택하여 적용하였는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로부터 직접 특정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그것에 의미를 함축한 코드(code)를 생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Strauss, & Corbin, 1998). 코딩의 절차는 세그멘팅(segmenting), 코드의 발견 및 생성의 순으로 진

행됐다. 여기서 세그멘팅은 수집한 자료 안에 학습자의 시각이 담긴 의미있는 문장이나 단락에 밑줄을 긋는 작업이며, 세그멘팅이 끝난 자료 안에 반복되는 주제를 도출하고 명칭을 부여하는 활동이 코드의 발견 및 생성 과정이다(Kim, &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딩 절차가 NVivo 10을 통해 이루어졌다.

#### 4. 자료 분석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 채택한 NVivo 10은 질적 연구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 가장 대중적인 QSR NUD\*IST (non-numeric unstructured data indexing, searching and theorizing)의 최신 버전(Richard, 2014)으로 텍스트에 드러난 정보를 노드(node)를 만들어 핵심 주제들로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 구조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Bergin, 2011). 특히 질적인 연구 자료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그 결과를 양적인 수치로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Park, 2014).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3차례 이상 읽으면서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내어 그것을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초점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집중적 정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 별로 분류하였다. 주요 분석 범주가 도출된 뒤에는 분석범주별 해당 자료를 다시 읽어가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위 요소로 묶어 재분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NVivo 10이 연구자의 연구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다가 설명할 수 없었던 중전의 질적 연구 수행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줄 수 있다는 점, 연구자의 연구 질문이 현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를 NVivo 10 내의 하위영역과 관계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 산만하고 방대하게 들어온 자료라도 코딩한 항목 간에 코딩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항목이 참여자에게 의미가 큰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Park, 2014)등이 본 연구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된 기능이다. NVivo 10이 질적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의 모든 과정에 걸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범주화가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설득력 있는 가설생성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 5.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은 후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가보고식 기술을 하였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에게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개인적인 정보, 기록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결과에서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약속하며 익명으로 자료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이상의 내용을 서면화된 동의서로 작성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교육실습생의 경험 내용

교육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경험의 분석 결과 총 97개의 노드가 형성되었다. 각 문항 중 “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에 대한 중심 단어가 가장 많이 분류되었다. 학생에 대한 이해와 애정, 자상함, 적극적 행동과 노력하는 자세,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학생의 개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사, 융화감, 존중받는 행동과 신뢰감, 리더십, 의사소통을 잘하는 교사, 학생을 파악하는 센스, 혼낼 줄 아는 교사 순이었다. 2차 분석 단계에서는 1차 분석결과 중 보건교사의 업무 개선 필요, 업무과다 등 유사개념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코딩하여 정리하였으며 만족스러운 수업, 만족한 수업 등 동의적 개념이므로 묶어서 총 95개의 단어로 다시 범주화되었다. 분석결과 유목화 내용은 각각의 표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실습을 자신의 미래교사의 진로에 대하여 시험하거나 반성하는, 즉 미래교사로서 가능성의 시험대라기 보다는 설레임과 긴장, 두려움 등 새로운 경험으로서 실습을 경험하고 있었다.

### 2. 교육실습생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실습을 자기의 적성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계기로서 생산적이고 반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실습에서 대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보건교사의 역할을 배우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지위를 갖는 입장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의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참여자들이 서술 표현한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실습 첫날 느낌과 마지막 날 느낀 점

참여자들의 교육실습 첫 날 느낌은 걱정(18.56%), 기대되고 떨림(10.95%), 긴장(8.56%), 두려움(7.68%), 낯설고 어색(7.1%), 어리둥절(4.03%), 설레임 반 두려움 반(2.43%), 교사가 된 기분(1.43%) 순이었다. 마지막 날 느낌은 분석결과 아쉬운 마음(22.00%), 헤어짐이 슬픔(8.65%), 기쁨과 보람(7.63%), 존중 받고 있다는 기분에 즐거움(6.18%), 시원섭섭함(5.93%), 고맙고 뿌듯함(4.41%), 보건교사에 대한 편견이 안타까움(4.17%), 감사(3.85%), 행운(1.98%)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임상이 아닌 교생실습이라는 것과 학교에 가는 것 자체로 낯설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지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고, 점차 보건교사의 업무를 파악하며 보건교사의 업무와 학생들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실습 마지막 날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아쉬운 마음으로, 기쁨과 보람으로 교차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 자신이 실제로 하는 수업을 통해 뿌듯함과 감사함을 알게 되고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기까지 성숙하게 됨을 경험하였다.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다. 실습 첫날은 작은 설레임으로 시작되었다(참여자 1).*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지만 마치고 가려니 아이들이 눈에 밝히고 뭔가 두근두근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다(참여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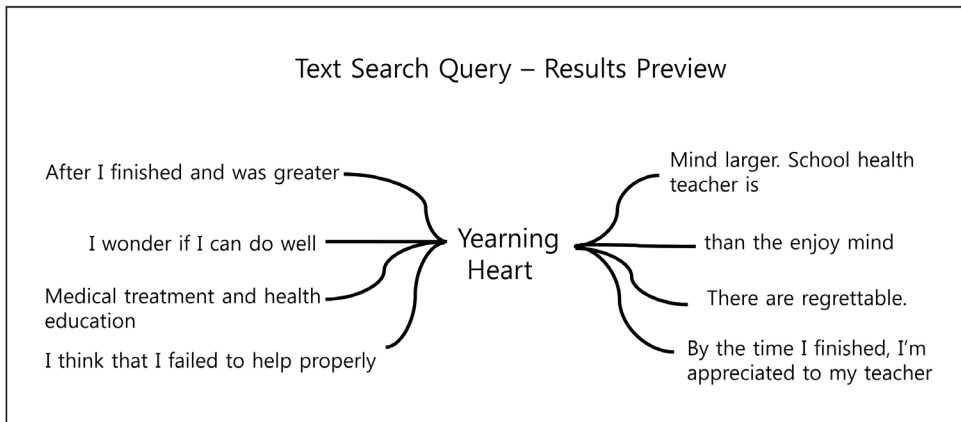


Figure 1. Text Search Query – Results Preview

2) 보건교사의 업무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참여자들이 교생실습 후 보건교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응급처치(16.26%), 보건교육(11.26%), 예산편성, 기획, 관리, 공문 작성(11.14%), 건강검사 및 정서행동검사(8.82%), 요양호자관리와

가정 통신문작성 및 발송(8.78%) 순이었다(Table 1). <Figure 1>은 실습 첫날 느낌인 '두려움'과 실습 마지막 날 느낌인 '아쉬움'이라는 어휘를 NVivo 10을 이용해 찾고, 이를 '워드트리(Word Tree)'로 나타낸 것이다. 연구에 채택된 질적자료를 중심으로 NVivo

Table 1. Feelings of the Teaching Practice (N=43)

Categories	Node	Frequency(%)
Feelings of the first day to the teaching practice	Worry	18.56
	Expectations and excitement	10.95
	Tension	8.58
	Fear	7.68
	Strange and awkward	7.10
	Confused	4.03
	Tingling half fear half	2.43
	Feeling like a teacher	1.46
Feelings of the last day to the teaching practice	Desiderium	22.0
	The sorrow of parting	8.65
	Joyful and rewarding	7.63
	Feeling the pleasure that respect	6.18
	Feeling mixed emotions of joy and sorrow	5.93
	A grateful feeling	4.41
	Pitiful feeling of the prejudice for the school health teacher	4.17
	Appreciate	3.85
Important works to consider as a school health teacher	Fortune	1.98
	First aid	16.26
	Health education	11.26
	Budgeting, planning, management and official documents	11.14
	Health Screening, emotional and behavioral health screening	8.82
	Management of a unhealthy students and send out school newsletters for the parents	8.78

10의 '검색(Query)' 기능을 활용하여 두려움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결과 참여자들은 보건교사의 업무 중 응급처치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예산편성부터 수행, 평가까지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임상실습에서는 비교적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건교사의 행정적 업무 능력과 그 모든 책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하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한해의 계획을 미리세워 그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또 행하기 까지 여러 공문이 왔다갔다 하고 그에 맞는 수행하기까지 많은 절차와 준비가 있었음을 알았다. 학교이지만 그 속에서 보건교사는 자율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많아서 더불어 그 책임까지 막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획수립하고 평가까지 해야 되고 그 책임이 학생들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니 실로 큰 과업을 하고 있는 자리였다(참여자 3).

### 3) 보건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참여자들이 보건교사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애정(11.15%), 자상함(5.17%), 적극적 행동과 노력하는 자세(4.53%),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3.89%),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사(3.69%), 윤리적인 교사(3.48%), 융화감(3.27%), 리더십(3.14%) 존중받는 행동과 신뢰감(3.14%), 의사소통 잘하는 교사(2.72%), 학생을 파악하는 센스(2.04%), 혼내줄 줄 아는 교사 필요(1.72%), 모범이 되는 인성을 가진 교사(1.40%)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보건교사의 자질 중 따뜻한 마음을 지닌 자상함과 학생들을 파악하는 센스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리더십 등을 중요하게 느꼈다. 이는 교사에 대한 막연한 자질이 실제학생지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는 보건교사의 업무를 엿보면서 소통과 융화의 중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보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면서 걱정해주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보건실을 스스로없이 찾아오는 이유가 선생님의 자상한 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교사로서

자상함을 가진 따뜻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한다(참여자 4).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은 교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융화감이었어요. 혼자 독립된 공간 안에 있지만, 혼자 동떨어지지 않고 학교 안에 건강관리자 필요한 교사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5).

### 4) 보건교육 수업 후 느낀 점

참여자들은 보건교육 수업 후 반성과 아쉬움(7.99%), 학생과 함께 호흡하는 수업이 중요함 깨달음(7.09%), 교사의 피드백 후 수업이 좋았다(5.99%), 미안한 마음(4.73%), 자신감(3.66%), 만족한 수업(3.57%), 행복한 수업(3.01%), 동료피드백 후의 수업이 도움됨(0.92%), 허탈함(0.57%) 순으로 느꼈다. 참여자들은 수업 전에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수업 후에는 오히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의 의미로 바뀌었고, 문제점을 보강한 후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신감을 경험하였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았고, 준비를 하면할수록 점점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준비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느꼈던 그 부담감도 준비하는 행위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부담감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참여자 6).

포커스를 나에서 아이들로 옮기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조언들도 적극적으로 첨가하면서 수업안을 계획했고 두 번째 수업부터는 첫 수업보다 아이들의 반응을 더 이끌어냈고 세 번째, 네 번째 수업에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신이 나서 재미있게 수업을 했었다(참여자 7).

### 5) 실습 중 가장 많이 관찰한 보건실 건강문제

참여자들이 실습 중 보건실에서 가장 많이 관찰한 건강문제는 복통(24.23%), 팔과상(11.83%), 두통(11.34%), 염좌(6.28%), 타박상(6.02%), 갈증(5.08%),

외상(4.52%), 우울증(1.62%), 근육통(0.75%), 응급처치(0.12%), 감기(0.05%)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 중 복통, 두통 등 간단한 건강문제부터 응급처치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보면서 보건교사의 역할 중 직접간호제공자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아이들 처치와 함께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신체검진도 쌓여 있고, 검진 후에 결과를 정리하고 통계 일과 문서정리까지 해야 하는 업무에 검진 후에 나온 비정상 결과에 대한 관찰과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는 일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겪게 되었다(참여자 8).

#### 6) 실습 후 보건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

참여자들이 학교현장실습 후 보건교사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의 변화를 보인 것은 편한 직업이 아니라고 인식변화 됨(25.17%), 업무 과다(12.06%), 보건교사 배치 확보 필요(4.53%), 보건교사 인식 개선필요(2.53%), 보건교사 업무 분담 필요(1.12%), 보람차고 중요한 일(0.94%) 순이었다.

참여자들은 예비 보건교사로서 실습하기 전에는 편한 직업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으나, 실습이 진행되면서 많은 업무를 확인하며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과 보건교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의 직업으로서 탐색하며, 보건교사라는 직업은 힘든 직업이지만 그만큼 보람된 직업이라는 느낌을 경험하였다.

보건선생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생각은 쉽고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저런 편한 직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건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와 스트레스를 직접 옆에서 보다보니까 결코 편한 직업은 아닌 것 같다(참여자 9).

아이들 처치와 함께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신체검진도 쌓여 있고, 검진 후에 결과를 정리하고 통계 내는 일과 문서정리까지 해야 하는 업무에 검진 후에 나온 비정상 결과에 대한 관찰과 가정에 통신문을 보내는 일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몸

소 겪게 되었다(참여자 10).

7) 실습 후 느낀 점과 학교보건관련 개선현안 문제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실습 후 학교보건관련 개선 현안 문제로서 보건교사 업무 개선 필요(13.56%), 업무 과다(11.65%), 보건교사 배치 확보 필요(10.14%), 보건교육 잘하는 교사 되고 싶다(8.20%), 보건실 현대화 지원 필요(5.30%), 보건교사 인식 개선 필요(5.02%), 학교보건 업무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 느낌(2.84%), 보건교육 중요성을 깨달음(2.31%) 등의 순으로 경험하였다(Table 2). 보건교사는 편한 직업이 아니라는 일반 교사들과 대중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교육실습생들이 교육 실습 후 종합적으로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보면서 너무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꼈다. 가장 많은 주제는 보건교사 업무개선 필요(6.92%), 보건교육 잘하는 교사 되고 싶다(3.63%), 보건교사 배치확보 필요(3.56%), 보건교사 인식개선 필요(3.30%), 시원섭섭함(2.43%), 감사(1.75%), 보건교사에 매력을 느끼고 도전하고 싶음(1.56%), 보건교사에 대한 긍정적 생각 가지게 됨(1.49%), 보건교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됨(1.51%), 성장(1.20%), 보상(1.11%), 행운(0.58%) 등의 순이었다(Figure 2).

보건실에 2인 보건교사제가 도입되어서 보건실 업무와 보건교육 업무를 나눠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참여자 11).

생각했던 건과는 달리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 보였 다. 난 보건교사가 된다는 꿈은 실습을 하면서 접었다. 실습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까? (참여자 12).

보건교사에게 많은 업무가 부여되는 것을 개선되어야 할 점인 것 같다. 보건교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일이 쉽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교사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 다른 교사 못지않게 힘든 직업임을 알려야 하며, 보건교사도 교사로서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참여자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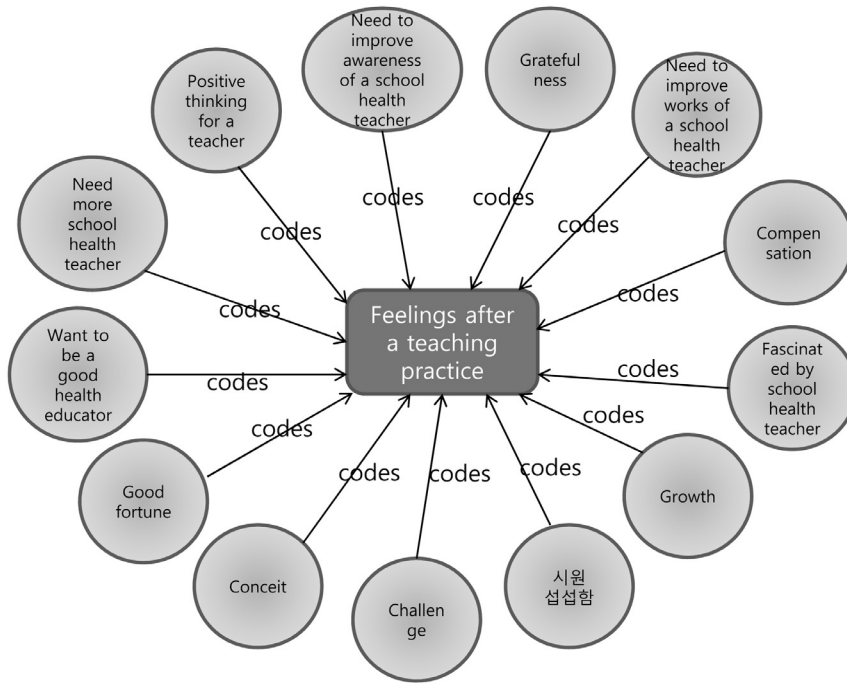


Figure 2. The Feelings after a Teaching Practice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중 보건교사 교육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교육실습 경험 내용을 분석하고 이들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학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예비 교사들을 잘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현장실습은 교육실습생들이 대학교에서 갖고 닦은 지식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는 첫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 교육실습생들의 학교현장실습 경험내용과 실습에 부여하는 의미를 논의하고자한다.

교육실습생의 경험 내용은 실습을 하기 전 두려움과 긴장, 설렘이었던 것이 기쁨과 보람, 아쉬움,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이었다. 이는 '설렘과 걱정'을 경험하고 실습현장에서는 '낯설고 어색한 학교'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Shim과 Choi (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참여

자들은 학교현장실습을 시작하면서는 낯설고 어색한 학교에 천천히 적응해 가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문서 처리와 가정 통신문 발송 등 너무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교사를 보면서 보건교사에 대한 편견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존경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보건 교사의 수업시연과 자신이 직접 해 보는 수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반성을 하였고, 보건교사 및 동료의 조언에 따라 수업내용이나 방식을 수정한 경우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보건교사라는 진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동기유발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을 탐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에서 교사가 실제로 어떤 직업인지를 체험하며 판단하며, 현장에서 현직 교사들의 삶을 보거나 자신이 교사가 되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교사가 보람을 느끼지 않고서는 건디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Jo (2008), Kim과 Kang (2014)의 연

Table 2. Analysis for the Teaching Practice

(N=43)

Categories	Node	Frequency(%)
Important qualities to consider as a school health teacher	Understanding and affection to the students	11.15
	Prevenance	5.17
	Aggressive behavior, work	4.53
	Love and care in mind	3.89
	Stud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recognition and respect for a teachers	3.69
	Ethical teacher	3.48
	Harmonize with other teachers	3.27
	Leadership	3.14
	Respected and reliable	3.14
	Good communication skills with students	2.72
	The sensitivity with grasp to the student	2.04
	Knows how to do the disciplining teachers	1.72
	Being a model for toughness with teacher	1.40
	Feeling of after health education	Introspection and desiderium
Important enlightenment of classes with students		7.09
Good education after the teacher's feedback		5.99
Feeling for sorry		4.73
Self confidence		3.66
Satisfied with the lessons		3.57
Happiness of teaching		3.01
Helpful classes after colleague feedback		0.92
A state of lethargy	0.57	
The most observed health problems in teaching practice	Abdominal pain	24.23
	Abrasion	11.83
	Headache	11.34
	Sprain	6.28
	Bruise	6.02
	Thirst	5.08
	Trauma	4.52
	Depression	1.62
	Myalgia	0.75
	First aid	0.12
Cold	0.05	
Changing perceptions about school health teacher	Not an easy job	25.17
	Excessive business	12.06
	Need to school health teacher's placement expand	4.53
	Increase awareness of school health teacher	2.53
	Necessity to work-sharing of a school health teacher	1.12
Rewarding garage important works	0.94	

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자들은 실습학교의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보건 교육이나 응급처치 등 보건교사로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결과적으로 교사로서의 자질 중 '소통과 관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즉, 교육실습생에

게 '소통과 관심'은 교사로서 보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수업 및 업무를 원활히 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실습생 자신이 스스로 풍부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자질을 수양하는 방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실습생은 학생들 진로 지도를 위해

서는 자신이 다양한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보건교사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임상경력을 2, 3년 정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술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다. 이는 Shim과 Choi (2013)의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적업을 탐색하는 기회와 자기반성의 기회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실습생은 효과적인 보건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교사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자질을 쌓으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학교현장실습 후 보건교사의 자질로서 복잡한 업무와 학생 통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보건교사를 관찰하면서 리더십 또는 통제력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학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보건교사를 현실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Kim (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 예비 교사들을 잘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전문성은 구체적인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자신과 학생, 그리고 감정 및 태도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교사의 종합적 경험과 관련된다. 특히 교육실습은 교육실습생들이 대학교에서 갖고 닦은 지식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실천적 지식을 쌓아가는 첫 관문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교육실습생이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 4가지 측면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교육실습에 대한 실습생들의 인식을 타당하게 드러내 주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들이다. 첫째, 학교현장실습의 의미의 측면과 둘째로는 보건교사의 업무 측면이다. 셋째는 교사전문성 및 교사의 자질의 측면이고, 넷째는 학교보건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교사의 적정배치에 대한 측면이다.

첫째, 학교현장실습의 의미의 측면과 관련하여 G대학교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을 미래의 보건교사로서 가능성의 시험대로서 정의하며 보건교사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현장실습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고 실천해보

는 과정, 교육활동 및 교직생활에 대한 경험, 교직적성을 점검하는 과정, 교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등 기본 능력을 형성하는 과정, 교육현장 연구 및 실천의 기회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어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Kim, 2005; Kim, & Kang, 2014). 본 연구의 결과, G대학교 교육실습생들에게 학교현장실습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 중에서 교직적성을 점검하는 과정에 크게 가까워 보인다.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을 하면서 교사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인지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교사로서 잘 해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점에서 Tang (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에 따라 교육실습생들이 실습에서 겪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은 이후에 교사의 진로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진로를 고려할지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실습생이 실습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한다면 교직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실습 후에 교사가 되기 위해 2~3년의 병원 임상경력을 쌓은 후 열심히 임용준비를 할 것이다. 이는 Ryu, Im과 Cho (2013)의 연구결과 보건교사의 임상경력이 많을수록 사고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수행에 자신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실습생들은 응급처치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임상경력의 중요성을 느낀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실습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교육실습생은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 너무 많은 보건교사의 업무와 자질을 탐색해보면서 실습은 미래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에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교사로서의 보람과 대단함을 보면서 교사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둘째, 보건교사에 대한 업무의 측면과 관련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첫째 업무는 응급처치였고 다음은 보건교육이었다. 교육실습생들이 보건실에서 가장 많이 관찰한 건강문제는 복통(24.23%)이었는데, 이는 Chung (2004)의 상반기 보건실 이용결과 감기(19%), 소화불량(16%) 순이었던 연구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교육실습생은 계절적으로 5월에 집중적으로 실습을 하였던 차이라고 본다.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을 하고난

후 보건교사는 편하다는 실습 전의 이미지에서 보건교사는 편한 직업이 아니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명감에 대한 인식과 보람 없이는 건디기 어려운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실습생이 현장교사를 엄청난 양의 업무 수행까지 척척 해내는 슈퍼맨·슈퍼우먼이라고 경험한다는 Jo (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won과 Oh (2011)는 보건교사의 역할기대 중 '교육'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기에 보건교육자의 역할수행, 전문상담가 훈련 등의 교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는데 교육실습생은 교사란 학생들에게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만능인이라고 규정하게 될 것이라는 Kim과 Kang (201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Oh와 Kwon (2010)이 보건교사는 평균 이상의 직무스트레스를 느끼면서도 자율성과 소명의식, 공중서비스 영역의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직무요구 과다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았던 연구결과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Oh, Gang, & Lee, 2012).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에게 보건교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편한 직업이 아니기에 교사 스스로도 사명감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고 있어야하지만, 보건교사가 편하다는 일반인들의 편견을 제거하고자 하는 존경의 대상으로 이미지화 되었으며, 학생들에게서 보람을 얻지 못한다면 견뎌내지 못할 직업이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지화 된다. 더불어 교육실습생은 실습학교 현장교사들의 고충을 보고 자기가 학생들에게 보건봉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해보면서 보건교사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능력과 자질들이 무엇인지 달리 생각해 보게 된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이 학교간호실습 후 보건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였고 향후 보건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던 결과를 지지한다(Jang, Han, Lee, & Han, 2002) 이러한 실습경험은 교육실습생이 훌륭한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투여하는 노력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교육실습생이 보건교사로서의 교직에 대하여 갖는 이미지와 보건교사전문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보건교사의 전문성 및 교사의 자질의 측면을

탐색하면서, 교사전문성에 대한 시각과 훌륭한 교사상을 형성하며 모델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건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무리없이 받아들이면서 직무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에 대한 주변의 인식부족의 편견과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해가는 Lee와 Lee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보건교사로서의 열정이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교사전문성과 관련하여서 교육실습생은 교과전문성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보건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모델로 활용하고 개인적으로 풍부한 병원 임상경력의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보건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 및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활용하였다. 교육실습생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보람을 얻으려고 하지만 통제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사랑과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며 혼낼 때 혼낼 줄 아는 리더십 있는 능력 있는 보건교사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실습생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보람을 얻으려고 하지만 통제를 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사랑과 통제의 필요성을 느끼며 혼낼 때 혼낼 줄 아는 리더십 있는 교사상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실습생들이 학교현장실습 후 학생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려고 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넷째로, 학교보건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교사의 적정배치에 대한 측면이다. 많은 보건교사들은 보건실에서 홀로 고군부투하며 자신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며 행정적 문제점들을 개선해왔고, 개인주의적인 교사문화에서 교육 과정속에서 보건 분야라는 독특한 분야를 홀로 헤쳐 나가는 외로운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보건교사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업무를 한다는 것만으로 보건교사는 편하다는 편견이 있었으며, 2009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제도적 보완이나 교사확대 배치 없이 홀로 보건봉사업무와 보건교육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는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보건교육이 보건교사의 직무가 되어 보건교사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2009년부터 보건교육의 실시로 학교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학급 보건교사 확대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Kim, 2012)에서 보건교사 배치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현실에서 보건교사의 확대배치를 주장하는 Kim (2013)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에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이 바라본 학교보건의 개선 현안 문제에 대한 사안을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여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의 실습경험을 이해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개선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 년동안의 교육실습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 후기에 근거해 이들의 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의 경험내용은 긴장과 설렘으로 시작한 교육실습이 아쉬움과 보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이었으며, 보건교사의 업무 중 응급처치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경험하였다. 교육실습생들은 보건교사의 업무과다를 느끼면서 보건교사가 편하다는 편견을 버리게 되고, 나아가 보건교사의 확대배치를 느끼며, 보건교사가 보람된 직업임을 경험하였다.

교육실습생들이 학교현장실습 경험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첫째, 학교현장실습의 의미의 측면에서 미래의 보건교사로서 가능성의 시점대로서 정의하며 보건교사를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보건교사에 대한 업무의 측면에서 응급처치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았으며, 그 다음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보건교사의 전문성 및 자질 측면에서 풍부한 임상경력의 필요성과 교육자로서 인성과 자질 함양의 중요성을 느끼며, 훌륭한 교사로서의 모델링을 경험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넷째로, 학교보건 개선 측면에서 보건교사의 과다한 업무를 경험하며,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보건교사의 확대배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는 측면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질적 연구 분석프로그램인 NVivo 10을 이용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한 것으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시하고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이 경험한 실습현상을 의미있는 자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보건교사 교육실습생들의 경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실습생실습생은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했던 교육실습이 아쉬움과 보람으로 느끼며, 보건교사의 너무 많은 업무를 보면서 보건교사 배치의 적정성을 제시하였기에, 교육당국에서는 보건교사의 적정배치를 법제화해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실습생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학교현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교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실습생 실습과정에서 교육실습생들이 교직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건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이수는 모든 대학에서 정원의 10%이내만 실시되며, 2009년 이후 신설 대학에서는 교직설치도 안 되는 시점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는 보건교육의 업무가 법제화되었고,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규모에 상관없이 오로지 1인만 두도록 되어 있어 보건교사들이 보건교육, 보건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이상으로 교육실습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한 달 동안의 실습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습 경험의 신념들을 추출하고 논의를 해보았다. 본 연구진들은 교육실습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NVivo 10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반복하여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육실습생은 보건교사의 과다업무의 척박한 환경에서 너무 많은 업무를 함께 하는 힘겨운 경험을 하며 높은 고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았다. 교육실습생이 교사로서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제도적인 측면은 물론이며 보건교사에 대한 제도적 자원도 충분치 않아 보였다. 이에 본 연구가 교육실습생의 경험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의 문을 열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눈에 비쳐진 보건교사 배치 확대 필요성과 업무 조정에 대한 후속연구와 교육실습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References

- Ahn, J. J. & Kim, B. J. (2012). Analysis on recognition and role expecta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ho are attending a course of study for the teaching profession regarding school health teacher.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3), 221-246.
- Bergin, M. (2011). NVivo 8 and consistency in data analysis: reflecting on the use of a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gram. *Nurse Researcher*, 18(3), 6-12. <http://dx.doi.org/10.7748/nr2011.04.18.3.6.c8457>
- Chung, H. M. (2004).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database for school health improvem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8(1), 154-166.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 Bass.
- Evelein, F., Korthagen, F., & Brekelmans, M. (2008). Fulfillment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student teachers during their first teaching experience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5), 1137-1148. <http://dx.doi.org/10.1016/j.tate.2007.09.001>
- Hur, C. S. (2007). Practicum as a place for reconstructing pedagogical knowledge: Experiences of five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1), 95-127. <http://dx.doi.org/10.15708/kscs.25.1.200703.005>
- Jang, I. S., Han, S. H., Lee, M. J., & Han, M.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health practice competency and satisfaction of school health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6(2), 423-435
- Jo, S. H. (2008). Educational values of teaching practicum as a part of teacher preparation cour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6(2), 317-342.
- Jung, M. K. (2007). Pre-teacher's perception of good college instructional practice in the teacher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3), 247-264. <http://dx.doi.org/10.15708/kscs.25.3.200709.010>
- Kang, H. S. (2013). In search of the reflection and orientation of the practicum in Korea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0(3), 33-74.
- Kim, B. C. (2005). A qualitative case study on a less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teaching profession cour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3), 319-351.
- Kim, H. S. (2012). History and development strategy of school health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5(2), 147-158.
- Kim, M. K. (2013). A study on the change in health teacher placement standards and the problems in the placement polic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3), 133-143.
- Kim, P. S., & Kang, H. S. (2014). Research on preliminary teacher's teaching practice. Inha University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Inha Education Forum*, 20(1), 51-78.
- Kim, Y. C., & Kim J. H. (2008). Data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Understanding software program. *Anthropology of Education*, 11(1), 1-35.
- Kim, Y. M., Ha, Y. M., Park, H. J., Jung, H. S., & Kwon, E. H. (2012). Factors related to teachers' self-efficacy in Korean health teacher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5(1), 59-67.
- Kwon, J. O., & Oh, J. A. (2011).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in school

- health teachers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each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1), 36-43.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36>
- Lee, J. H., & Lee, B. S. (2014). Role adaptat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 establishing their own posi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3), 305-316. <http://dx.doi.org/10.4040/jkan.2014.44.3.305>
- Oh, J. N., & Kwon, J. O. (2010). Job identity and job stress 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21(3), 341-350. <http://dx.doi.org/10.12799/jkachn.2010.21.3.341>
- Oh, K. O., Gang, M. H., & Lee, S. H. (2012).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of school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1), 60-71.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1.060>
- Park J. W. (2014). *NVivo 10 Essentials*. Pusan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ess.
- Richard, L. (2014). *New features of NVivo 10. from QSR international*. Retrieved August 6, 2014. from <http://www.qsrinternational.com>
- Ryu, H. S., Im, Y. J., & Cho, J. H. (2013). Health education needs and confidence of school nurses in Korean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7(2), 280-292. <http://dx.doi.org/10.5932/jkphn.2013.27.2.280>
- Roh, K. J. (2012). A case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personal practical theories: enhancing self-understanding and reflection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4), 417-443.
- Shim, C. S., & Choi, M. J. (2013).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chool health practice of pre-service school health teachers in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7(4), 107-114.
- So, K. H. (2004). Narrative inquiry: implications for teacher-education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4), 189-211.
- Strauss, A.,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Tang, S. Y. F. (2003). Challenge and support: the dynamics of student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in the field experienc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9(5), 483-498. [http://dx.doi.org/10.1016/s0742-051x\(03\)00047-7](http://dx.doi.org/10.1016/s0742-051x(03)00047-7)
- Yang, S. O., Kwon, M. S., Jeong, G. H., & Lee, S. H. (2009). A study on the awareness of importance, performance level, and perceived competence level of school health promo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 96-104.

ABSTRACT

## Research on School Health Preliminary Teacher's Teaching Practice to the Use of NVivo 10 in Analyzing

**Chung, Mi J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Moon, He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Sun, Chun Ja**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yang Health College)

**Li, Dong Mei**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gzhou Normal University, China)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for understanding their experienc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what the trainee school health teachers experience during teaching practice period, the first experience as a teacher. **Metho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 2012-2014, using the student teaching practice self-reports. Participants included 43 school health preliminary teacher's teaching practice from G colleges. The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by utilizing 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CAQDAS), NVivo 10. **Results:** The trainees experienced that tension, excitement and fear was changed to joy, rewarding and gratitude. They defined the practice as a standard of the possibility in the capacity of a future teacher. It was a hard job without a sense of accomplishment. They thought that too much works in school health teacher and thanks to the school and teacher for the teaching opportunities. They think teaching as a hard job to endure without a sense of accomplishment. **Conclusion:** Findings of this study allow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rainees. It was investigated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a teaching practice. The challenge need to the expand school health teacher placement and more research.

**Key words :** Qualitative research, School health